

메이지(明治) 후기 국민교육에 관한 고찰: 창가(唱歌)를 통한 신민(臣民)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이권희**

| 목 차 |

I. 머리말	민)형성
II. 국민국가 일본의 규범 형성과 교육	IV. 메이지 후기 창가(唱歌)교육의 실태
III. 메이지 후기의 교육과 신민(臣	V. 맺음말

| 논문요약 |

일본의 근대교육은 메이지 신정부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서구 열강에 비해 늦게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 메이지 신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착목했던 것이 바로 교육의 근대화였던 것이다. 메이지 신정부는 부국강병(富國強兵)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인재양성이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선진 교육제도를 갖추고, 공리주의(功利主義)적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의 확립이 절실했다. 메이지 신정부는 당시의 선진문명국이었던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 교육제도를 참고 혹은 모방하여 학제를 만들었고, 시류(時流)에 따라 세부규칙을 개정한 교육령을 통해 일본의 교육제도는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필자는 일전에 1868년(明治元年)부터 1890년(明治23) 이전의 메이지 전기의 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그 후속으로 1890-1911년까지, 이른바 메이지 후기라고 할 수 있는 약 20여 년간의 일본의 국민교육의 실태에 대해 주로 교육이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개관(概觀)하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51-A00133]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며, 시의(時宜)에 따른 제도와 이념의 변화가 창가교육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실례를 통해 메이지 후기 일본의 국민교육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천황 이데올로기의 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 후기의 교육 실태를 주로 교육이념과 그 구현(具現) 대상으로써 창가교육에 주목하여 기술한다. 제국주의, 군국주의로 치닫는 20세기 초 일본의 사상적 정체성 확립에 교육이 어떻게 관여하고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써 메이지 후기 강력한 천황 중심의 국민국가 일본의 규범형성과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 주제어 : 국민교육, 창가, 학제, 덕육교육, 전쟁영웅

I. 머리말

1868년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은 외적으로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의 개국을 요구하는 서구 열강의 군사적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도쿠가와 막부(幕府)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몇몇 웅번(雄藩)의 도막운동(倒幕運動) 등에 의한 내적 혼란 속에서, 이를 돌파하고자 선택한 정치적 변혁이었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찌 되었건, 스스로 전근대적 요소를 과감히 개혁하고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정치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초래한 불행한 역사는 차치하더라도,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앞선 결단이었음에 틀림없다.

근대 일본의 발자취를 개관할 때, 메이지유신의 의의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무척 어려울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그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시대와 단절되는 메이지유신의 의의를 특필(特筆)하고, 나아가 21세기의 경제·문화 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출발점을 메이지유신에 두지 않는 연구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메이지유신은 문명사적 의미를 갖는 중대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일본의 근대교육 또한 메이지 신정부의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서구 열강에 비해 늦게 근대화의

길로 들어선 메이지 신정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착목했던 것이 바로 교육의 근대화였던 것이다. 메이지 신정부는 부국강병(富國強兵)과 식산흥업(殖産興業)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인재양성이 절실했으며, 이를 위해 하루 빨리 선진 교육제도를 갖추고, 공리주의(功利主義)적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육내용의 확립이 절실했다. 메이지 신정부의 초기 교육 관료들은 당시의 선진 문명국이었던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 교육제도를 참고 혹은 모방하여 학제를 만들었고, 시류(時流)에 따라 세부규칙을 개정한 교육령을 통해 일본의 교육제도는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필자는 일전에 1968년(明治元年)부터 1890년(明治23) 이전의, 이른바 메이지 전기의 교육제도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다.¹⁾ 따라서 본고는 그 후속으로 1890년-1911년 까지, 이른바 메이지 후기라고 할 수 있는 약 20여년간의 일본의 국민교육의 실태에 대해 주로 교육이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를 개관(概觀)하며, 시의(時宜)에 따른 제도와 이념의 변화가 창가교육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실례를 통해 메이지 후기 일본의 국민교육에 대한 통시적 고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본의 교육제도와 이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교육사적 관점에 입각한 일본의 교육제도의 한국에의 영향이라는 비교 프레임 속에서 양국 제도의 상호 영향관계를 비교하거나, 식민지 조선의 굴절된 신교육이라는 점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²⁾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면서도, 그야말로 천황이데올로기의 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 후기의 교육 실태를 주로 교육이념과 그 구현(具現) 대상으로써 창가교육에 주목한다. 이는 제국주의, 군국주의로 치닫는 20세기 초 일본의 사상적 정체성 확립에 교육이 어떻게 관여하고 진행되었

1) 메이지 전기 학제와 교육령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근대 교육제도의 변천에 대해서는 줄고 참조: 이권희(2011), “메이지(明治) 전기 국민국가 형성과 교육- 학제(學制)의 변천과 창가(唱歌) 교육을 중심으로,” 『日本思想』, 제21호, pp. 159-190.

2) 교육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일 양국의 학제 변천 과정을 비교 연구: 윤종혁(2008),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비교 연구』, 한국학술정보. 교육교류사적 관점에서 일본의 개화기 교육개혁과 한국에의 영향 등을 개관: 한용진(2010), 『근대 이후 일본의 교육』, 문. 특정 분야의 구체적 연구 중 교육령 반포 이후의 수신(修身)과목에 주목한 연구: 김순전 외(2004), 『수신하는 제국』, 제이앤씨.

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써, 이를 통해 메이지 후기 강력한 천황 중심의 국민국가 일본의 규범 형성과 교육이라는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국민국가 일본의 규범 형성과 교육

일본의 근대교육은 서양문명의 발전과 인재양성 관계에 주목한 메이지 신정부의 교육근대화 정책에 따라 1871년(明治4) 문부성(文部省)의 설치, 이듬해인 1872년(明治5) ‘학제’의 반포와 더불어 시작된다. 학제는 메이지 유신의 주체였던 당시 지사(志士)라 불리던 전 시대의 하급 무사계층이 다양한 경로로 목격했거나 배운 ‘양학(洋學)’을 중심으로 평등사상과 인권 사상에 자극 받아, ‘국민개학(國民皆學)’을 목표로 종래의 한학(漢學)을 중심으로 하는 ‘공리허담(空理虛談)’을 배격하고, 서양의 실학주의(實學主義) 사상에 근거한 획기적 교육제도와 이념에 기초한 교육대계(教育大計)였다. 대략 260여 년에 걸친 도쿠가와(德川) 정권 하에서 사상 유래가 없는 안정과 평화로운 시절을 보낸 일본은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성숙을 이루어냈는데, 그 배경에는 무사들의 자제를 대상으로 하는 한코(藩校), 서민의 자제들이 주로 배우던 데라고야(寺子屋), 특수교육을 담당했던 사설 교육기관 시주쿠(私塾) 등을 통한 식자층(識字層)의 확대가 있었다.³⁾ 한코에서는 주로 한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주의적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데라고야는 주로 읽고, 쓰기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

3) 에도시대의 난학(蘭學)은 영학(英學)과 불학(佛學)을 포함하여 양학(洋學)이라 불리게 된다. 양학은 먼저 의학에서 자연과학, 인문과학의 학문으로 점차 발전해갔으며, 막부 말기에는 군사과학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대표적 난학숙(蘭學塾)으로는 의사였던 오쓰키 겐타쿠(大槻玄澤, 1757-1827)의 시란도(芝蘭堂), 오가타 고안(緒方洪庵, 1810-1863)의 데키주쿠(適塾),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4-1901)의 게이오기주쿠(慶応義塾), 시볼트(Siedolt)의 나루타키주쿠(鳴瀧塾) 등을 들 수 있으며, 막부에 의한 양학 진흥기관으로 1856년의 반쇼와게고요(番書和解御用)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반쇼시라베쇼(番書調所)·요쇼시라베쇼(洋書調所)·가이세이조(開成所) 등으로 이름과 조직을 개편해 발전해 온 양학연구와 교육을 겸한 양학연구기관이 있었으며, 그 밖에 이가쿠쇼(醫學所), 강무소(講武所), 군함조련소(軍艦調練所), 어학소, 광산학교, 영어연습소(英語稽古所), 프랑스 어학전습소 등에서 실학적 지식과 기능을 중시한 양학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다.

는 실용적 기능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시주쿠에서는 유학자(儒學者)·국학자(國學者)들이 중심이 되어 개인이 중심이 된 교육이 행해졌으며, 에도(江戸) 후기에 이르러서는 양학자(洋學者)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주쿠가 번창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기관을 통해 근대 이전에 이미 일반인들의 교육 열과 수준은 상당한 부분까지 달해 있었으며, 메이지 신정부가 구상한 근대교육 제도가 빠르게 보급·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상당수의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메이지 신정부 출범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선진화된 교육제도 확립을 목표로 국민교육에 박차를 가한 배경에는 막부 말기 서구 열강의 대외적 군사위협을 계기로 자각하게 된, 세계사적 흐름에 자칫 뒤쳐질 수 있다는 자발적 판단과 위기의식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교육에 의한 국민 계몽과 더불어 일본·일본인이라는 공통된 국민의식, 이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된 국가의식 형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제는 전통적인 신분제도 철폐와 더불어 전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합의에 의해 제정·반포되었으며,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에 따른 국민의 규범형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⁴⁾

학제는 국가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학교교육에 관한 제도로, 네덜란드의 학제를 비롯하여 교육행정 면에 있어서 프랑스 학제의 학구제(學區制)와 독일 학제의 독학제(督學制) 등을 모방·수용하여 교육을 정부의 통제 하에 놓는 일본 최초의 체계적 교육법제(教育法制)라 할 수 있다.⁵⁾ 학교별

4) 학제의 교육이념은 누가 작성했는지는 불명하지만 흔히 학제의 ‘서문(序文)’이라 불리는 태정관포고 214호 ‘학사장려에 관한 피양출서(學事獎勵に關する被仰出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근대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입신출세주의의 지향, 즉 결과적으로 학력 취득에 따른 균등한 인재의 선발, 학력에 의한 고용과 사회적 지위의 결정이라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체시는 어찌 보면 메이지 신정부의 신분 재조정에 의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급무사계급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복안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권희, 전계 논문.

5) 일본에서 최초의 학제는 오미령(近江令)에 보이는 ‘대학료(大學寮)’라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이호령(大宝令)에서는 시부성(式部省) 소관의 대학료가 있다. 요로령(養老令) ‘학령(學令)’에 의하면 대학료는 사무 관료 이외에 교관(敎官)으로 현재의 교수에 해당하는 博士 1명, 助博士 2명, 音博士 2명, 算博士 2명, 書博士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은 400명, 算生 30명, 書學生이 약간 있었다. 학생은 5위 이상의 13-16세 ‘聰令한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井上光貞 外(1976),

교육단계는 미국을 모델로 한 소학·중학·대학의 3단계로 구성했다. 직접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설치에 있어서는 전국을 8개 대학구(大學區)로 나누고, 각 대학구를 32개의 중학구(中學區)로 나눈다. 또한 각 중학구를 210개의 소학구(小學區)로 나누어 각 각의 학구에 학교를 하나씩 설치한다는 것으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전국에 8개의 대학과 256개의 중학교, 5만개가 넘는 소학교를 세운다는 장대하고도 야심찬 계획이었다. 또한 소학교는 상급(上級)과 하급(下級)으로 나누어 각 각 4년의 수학연한을 설정했고, 국민개학이라는 원칙하에 남녀의 구별과 부모의 사회적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원하는 자는 모두가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校舍)는 일부 서양식 건물로 신축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 시대의 번교, 데라고야, 사숙 등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민가(民家)를 빌려 사용하였고, 교원(教員) 또한 데라고야의 시쇼(師匠)였던 하급무사, 승려, 신관(神官) 등으로, 데라고야의 시쇼 층이 대부분 그대로 신식 학교의 교원으로 채용되었다.⁶⁾ 교육재정 또한 그리 넉넉치 않았다. 8개교를 설립 목표로 했던 대학도 1887년(明治21)에 도쿄대학(東京大學)이 설립되었을 뿐이다. 학제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며 개혁적인 내용이었기에 실질이 수반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했고, 교육비 또한 수급자 부담원칙이었기에 취학을 또한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5년의 학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1872년 단계에 일찍 교육대계를 구상했다는 점이며, 무엇보다도 국민개학이라는 목표설정, 그리고 그 구체적 구현으로써 초등학교 보급과 실학적 서양학문의 일본 접목을 위해 고등교육의 정비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이에 초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신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제가 반포된 같은 해에 바로 도쿄에 사범학교(師範學校)를 설립하였으며,⁷⁾ 각 학문 영역 별로 다수의 외

“律令,” 『日本思想体系3』, 岩波書店, p. 262.

6) 메이지 신정부는 막부 직할의 유학사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 쇼헤이자카가쿠몬조(昌平坂學文所)는 폐지했으나 에도 말기 설립한 양학 중심의 교육기관 가이세이조(開成所)와 이각코(醫學校)는 존속시켰다.

7) 1971년(慶應3) 폐지된 쇼헤이자카가쿠몬조(昌平坂學文所)를 일부 계승하는 형태로 1872년 도쿄에 설립된 일본 최초의 사범학교에서는 미국인 교사 스콧(Marion McCarrell Scott, 1843-1922)을 초빙하여 소학교수법(小學教授法)을 가르치는데, 이

국민교사가 채용되었다. 사범학교의 졸업생은 대부분이 초등교육에 종사했고, 또한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국비유학생으로 선발하여 파견함으로써 선진 학문을 배워오게 했는데, 이들이 귀국 후에는 고급관료가 되거나 외국인 전문교사를 대신하며 고등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제의 교육이념은 서양 학문의 습득으로 인한 개인의 입신 출세주의에 너무 경도되어 있었고, 획일적 통제에 의해 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억압, 게다가 일본 고유의 학문적 전통의 무시에 따른 반발 등으로 인해 얼마가지 못해 폐지되는 비현실적 모순을 내재하고 있었다.

정부는 1879년(明治12) 9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학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는 교육령을 반포한다. 문부다이후(文部大輔) 다나카 후지마로((田中不二麻呂) 등이 주축이 된 위원회에서 제정한 교육령은 미국식 자율적 교육제도로의 전환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⁸⁾ 독학국(督學局)과 학구제를 폐지하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이 직접 학교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또한 지방의 특성에 맞춰 각각의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자유교육령(自由教育令)’이었다. 총 47조로 구성된 교육령은 내용도 학제와는 달리 소학교 교육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소학교의 수학연한을 학제의 정규과정 8년에서 4년까지 단축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실제 취학의무는 그 4년 가운데에서 16개월 이상이면 된다고 이를 완화하였다. 교육의 목표 또한 개인의 입신이 아닌 ‘국가의 복지’에 두었다. ‘덕육(德育)’을 수반하지 않는 문명개화가 지닌 위험성을 경계해 덕육과 ‘지육(智育)’을 국민교육의 내용으로 삼았다.⁹⁾

것이 일본 사범학교의 시초이다. 1886년(明治19) 초대 문부대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에 의해 사범학교령이 제정되어 순량(順良)·신애(信愛)·위중(威重)의 3대 기질을 목표로 하는 사범학교 교육의 윤곽이 거의 정비되었다.

8) 다나카는 1871년(明治4) 이와쿠라사절단의 일행으로 서양 여러 나라를 시찰하고 귀국한 후 재차 1876(明治9) 유학생 감독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각 주의 교육제도를 둘러보고 지방분권주의를 배워왔다. 교육령은 그러나 자율적 분권주의를 참고로 미국인 학감(學監) 머레이(David Murray, 1830-1905)의 도움을 받아 자유주의·권학주의(勸學主義)적 교육제도를 기초(起草)했다. 당시 참의(參議) 겸 공부경(工部卿)으로 법제국(法制局) 장관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이 안을 대폭 수정하여 공포하였다.

9) 辻本雅史 외(2011), 『일본교육의 사회사』, 이기원·오성철 역, 경인문화사, p. 361.

즉, 국민의 공공의식 형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아직 지방 자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교육의 자치라는 개념을 일반 인민들이 알 리도 없었고, 교육 재원 절감을 위해 소학교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곳이 속출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취학률의 저하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부경(文部卿)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와 다나카는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령이 반포된 이듬해인 1880년(明治13)에 이른바 ‘개정교육령(改定教育令)’, 1885년(明治18)에 ‘재개정교육령(再改定)’이라 불리는 교육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880년의 이른바 개정교육령은 다나카 후지마로를 중심으로 추진된 자유화정책을 수정한 것이고, 1885년의 개정은 지방재정의 악화에 따른 세부 규칙의 부분 개정이었다.

메이지 13년의 개정교육령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교육이념의 변화, 즉 교육 이데올로기의 변화라는 것이다. 학제 반포 이후 자유교육령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교육이념은, 그것이 자율적이든 강제적이든 서양의 계몽주의적 학문의 보급과 이로 인한 개인의 입신출세를 지향하는 ‘실학(實學)’적·‘공리주의(功利主義)’적 사상에 기초한 국가주의(國家主義)적 규범 형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지육(智育)’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개정교육령은 당시의 ‘구화사상(歐化思想)’ 만능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일조한 교육 내용에 대한 반성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황도주의(皇道主義) 이데올로기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교육이념을 국민교육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1879년 메이지천황의 명의로 발표된 ‘교학성지(教學聖旨)’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학대지(教學大旨)와 소학조목 2건(小學條目二件)으로 이루어진 교학성지의 내용은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의 근대교육이 서양의 실학적 교육사조에 경도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대안으로써 ‘인의(仁義)’·‘충효(忠孝)’·‘애국심(愛國心)’ 등의 유교적 윤리를 중시하는 ‘덕육(德育)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서부터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1880년의 개정교육령은 개인적 실용주의와 국가적 실리주의가 합치된 ‘국가주의(國家主義)’ 확립을 위한 교육 방향의 ‘개정(改正)’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기

본으로 하며, 자본주의 체제는 공동체로부터의 개인의 독립을 전제로 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각과 상호 경쟁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교육의 과제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정교육령 등장에 따른 유교주의적 교육이념의 설정은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진보적 교육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역사 발전에 퇴행하는 구시대적 교육 방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이 걷게 되는 불행한 역사의 시작을 천황제 이데올로기, 혹은 국체(國體)사상의 형성과 관련된 국민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1880년 개정교육령의 이후 일본의 교육정책은 근대기 일본 국민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의 변화 속에 1885년(明治18)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내각의 초대 문부대신 자리에 오른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교육목표는 박애주의 정신의 함양과 애국심 고양을 통한 국가주의 형성에 있었다. 1886년(明治19) 모리는 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령을 대신하여 학교 종별로 ‘소학교령(小學校令)’·‘중학교령(中等學校令)’·‘사범학교령(事犯學校令)’·‘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의 네 개의 개별 정령(政令)을 반포한다.¹⁰⁾ 제국대학은 그야말로 일본의 근대화에 필요한 서양의 실학(實學)적 학문을 수학한 고급관료를 키우기 위한 기관으로, 중학교는 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학문적 소양과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과정 기관으로, 소학교는 심상(尋常)과 고등(高等) 두 단계로 나누고 심상소학교 4년 과정에 취학하는 것을 의무로 명시했다.¹¹⁾ 또한 사범학교는 장래의 교원들에게 철저한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기 위한 기관으로서 특히 중시되었다.

모리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일본의 근대화와 국민도덕의 강화라는 두 가지 교육목표를 설정했다. 다나카가 국가주의 형성에 있어 국어와 역사교육을 강조했다면 모리는 ‘천황제’에 주목했다. 즉, 1880년의

10) 총칭하여 ‘학교령(學校令)’이라 부른다. 학교령의 반포에 이르러 일본의 모든 학교, 즉, 소학교부터 제국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연구제도와 교수내용이 정비되기에 이른다.

11) 당시 도쿄대학(東京大學)이라 불리던 일본 내 유일한 대학은 ‘제국대학’이라 개칭된다. 또한 소학교령을 통해 일본 최초의 의무교육이 법으로 정해진다.

개정교육령 반포 이후의 교육이념은, 당시 일본사회 전반에 걸친 ‘구화사상(歐化思想)’에 대한 자성에서, 전통유학과 ‘존황사상(尊皇思想)’을 합체시켜 강력한 신민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황도주의(皇道主義)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있었다. 12) 즉, 모리의 교육이념은 종래의 실학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에 ‘수신주의(修身主義)적 교육을 조화시킨 국가주의(國家主義) 확립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모리의 교육이념, 나아가 메이지 정부의 교육이념은 1890년(明治23) ‘교육칙어(教育勅語)’ 공포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교육칙어에서는 국민의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천황 절대주의에 기초한 국체관(國體觀)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은 ‘인의충효(仁義忠孝)’를 절대시 하는 국민사상의 통일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교육의 목적 또한 진리 탐구나 개성의 신장보다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체, 즉 천황에게 충실한 신민(臣民) 육성에 있다고 하는, 교육을 통한 천황에 대한 절대충성과 애국심을 강조한다.13)

이후 교육칙어의 복사본과 메이지 천황 부부의 이른바 ‘어진영(御眞影)’이라 불리는 사진이 전국 학교에 배부되었다. 교육칙어는 각종 학교의 행사나 국가적 의례 시에 학생들에게 들려주었고,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에는 어진영 배례를 중심으로 한 축하의식을 추진했다. 수신(修身) 교과서 또한 이 교육칙어에 명시된 도덕적 기준에 따라 편찬되었다. 게다가 천황 축하를 위해 ‘천황폐하 만세’의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도

12) 메이지 13년(1880) 문부성에서 교과서로 사용이 부적합한 서적의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전 시대의 계몽적 양학자(洋學者)의 서책이었다는 것은 ‘학제’의 교육이념에 대한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福澤諭吉의 『通俗國權論』, 『通俗民權論』, 箕作麟祥의 『泰西 勸善訓蒙』, 加藤弘之의 『立憲政体論』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中村紀久二(1992), 『教科書の社會史 一明治維新から敗戦まで』, 岩波新書, p. 49.

13) 朕惟フニ我力皇祖皇宗國ヲ肇ムルコト宏遠ニ德ヲ樹ツルコト深厚ナリ 我力臣民克ク忠ニ克ク孝ニ億兆心ヲ一ニシテ世々厥ノ美ヲ濟セルハ此レ我力國體ノ精華ニシテ教育ノ淵源亦實ニ此ニ存ス爾臣民父母ニ孝ニ兄弟ニ友ニ夫婦相和シ朋友相信シ恭儉己レヲ持シ博愛衆ニ及ホシ學ヲ修メ業ヲ習ヒ以テ智能ヲ啓發シ德器ヲ成就シ進テ公益ヲ廣メ世務ヲ開キ常ニ國憲ヲ重シ國法ニ遵ヒ一旦緩急アレハ義勇公ニ奉シ以テ天壤無窮ノ皇運ヲ扶翼スヘシ是ノ如キハ獨リ朕力忠良ノ臣民タルノミナラス又以テ爾祖先遺風ヲ顯彰スルニ足ラン 斯ノ道ハ實ニ我力皇祖皇宗ノ遺訓ニシテ子孫臣民ノ俱ニ遵守スヘキ所之ヲ古今ニ通シテ謬ラス之ヲ中外ニ施シテ悖ラス朕爾臣民ト俱ニ拳々服膺シテ咸其德ヲ一ニセンコトヲ庶幾フ 教育칙어는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學制百年史 資料編’에서 인용. <http://www.mext.go.jp>. (2012년 3월 15일 검색)

모리였다. 모리의 이러한 교육이념은 1891년(明治24) 4월의 ‘소학교설비준칙’을 발령을 통해 어진영·교육칙어의 ‘봉치(奉置)’에 관한 구체적 규정으로 이어졌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소학교축일대제일의식규정(小學校祝日大祭日儀式規定)’을 제정하는 등 어진영과 교육칙어를 통한 천황주의 이데올로기교육의 강화로 이어진다. 모리에 의한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기본 골격과 천황제 이데올로기 형성이라는 교육이념의 확립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50여 년에 걸쳐 일본 교육의 근간을 이루며 일본인들의 정신적 규범의 형성과 이를 규정하였다.

Ⅲ. 메이지 후기의 교육과 신민(臣民) 형성

이렇듯 근대기 일본의 교육체제와 교육이념은 1872년의 학제 반포 이후 1879년의 교육령, 1880년과 1885년의 교육령의 개정 에 이어, 1886년의 종별 교육령 반포까지, 대략 20년이 조금 못 되는 긴 세월 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 기본 골격이 확립되었다. 거기에 1890년에 공포된 교육칙어의 교육이념을 같은 범주에 넣고 생각한다면, 대략 메이지유신 이후 30여 년의 세월 에 걸쳐,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황도주의(皇道主義)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일본의 국민교육의 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메이지 13년 이후 서구의 실학적·공리주의적 사상에 기초한 이른바 지육(智育)교육에서 전통적 유교주의를 바탕으로 ‘인의(仁義)’·‘충효(忠孝)’·‘애국심(愛國心)’을 강조하는 덕육(德育)교육으로의 교육이념 변화의 배경에는 당시 점차로 세력을 확대해 가기 시작한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에 대한 권력 측으로부터의 견제 내지는 억압이라는 의미가 있었음에 주의하고 싶다.¹⁴⁾

주지하는 바와 같이, 메이지 신정부의 수뇌부의 절대적 대다수는 사쓰마(薩摩)·조슈(長州)·도사(土佐)히젠(肥前) 등, 이른바 ‘삿초도히’라 불리던 웅번(雄藩) 출신자들이었고, 1873년(明治6) 정한론(征韓論)을 둘러싼 대립 이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이토 히로부

14) 山住正巳(1987), 『日本教育小事』, 岩波新書, p. 36.

미(伊藤博文) 등의 사쓰마·조슈 출신 관료는 그야말로 전권을 거머쥐게 된다.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나이토 로이치(內藤魯一)·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 등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민권파(自由民權派)는, 이와 같은 몇몇 특정지역 출신자들에 의해 국정이 운영됨을 ‘유사전제(有司專制)’라 칭하고, 이들에 의한 국정 전횡이 계속되는 한 국가는 붕괴하고 말 것이라 하여 이를 타도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국회개설, 헌법제정, 조세경감, 지방자치, 불평등조약 철폐라는 5대 요구를 내세우고, 메이지 신정부가 목표로 하는 절대주의적 천황제국가에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입헌제국가(立憲制國家)를 꿈꿨다. 1874년(明治7) 이타가키가 중심이 된 민선의원설립(民選議院設立) 건백서(建白書) 제출을 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1880~81년(明治13-14)을 고양기(高揚期), ‘군마사건(群馬事件)’·‘지치부(秩父)사건’·‘이다(飯田)사건’·‘나고야(名古屋)사건’ 등 정부의 과격한 진압에 테러나 봉기(蜂起)로 맞선 이른바 1884년(明治17)의 ‘격화사건(激化事件)’을 계기로 정부의 극심한 탄압을 받아 쇠퇴하기 시작한다. 자유민권운동이 학교에 과급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1875년(明治8) 인신비방을 금지하는 언론통제령인 ‘참방률(讒謗律)’, ‘신문지조례(新聞紙條例)’, ‘출판조례개정(出版條例改正)’과, 1880년(明治13)의 ‘집회조례(集會條例)’를 통해 교원과 학생들의 정치집회를 전면 금지하였고, 1882년(明治15)의 ‘집회조례개정추가(集會條例改正追加)’ 등의 법률제정으로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했고, 이는 1890년(明治23) 제국의회(帝國議會)가 개설될 때까지 이어졌다.¹⁵⁾ 이러한 자유민권파의 교육운동은 당연 천황제 이데올로기 형성을

15) 자유민권운동의 사상적 배경에는 밀의 ‘자유론(自由論)’·‘대의정체론(代議政體論)’, 밴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론’, 스펜서의 ‘권리론(權利論)’, 루소의 ‘사회계약론(社會契約論)’ 등의 사상적 영향이 있었다. 자유민권사상을 가장 체계적으로 구성한 이론가는 인권(人權)에 최고의 가치를 둔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였다. 나카에 조민(中江兆民)은 프랑스 시민혁명사상을 소개했고, ‘생존권(生存權)’ 위에 여러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권(自由權)’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권주의운동 사상 속에 국권론비판, 여성해방론, 피차별부락해방론(差別部落解放論), 도시무산자(都市無產者) 조직론 등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아직 체계적 구성으로는 미흡했고, 중국과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권 국가에 대한 차별의식과 소수민족의식 결여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백성잇키(百姓一揆)·요나오시(世直し)·민중종교(民衆宗教) 등에서 볼 수 있는 농민(農民)의 해방사상을 포함하는 사상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패배했다. 國史大辭典編輯委員會編(1986) “自由民權運動,” 『國史大事典』, 吉川弘文館. 참조.

위한 교육체제에 반대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교원들은 이와는 별도의 가치를 교육의 이념으로 삼았다.

일본교육사 연구에서 자유민권운동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친 시기부터이다. 구로사키 이사오(黒崎勲)는 자유민권과는 국가에 의한 공교육 조직화에 대항하여 ‘교육의 자유’에 기초한 ‘인민의 협의(協議)에 의한 공교육의 자주적 조직화’를 지향했고, 따라서 자유민권운동은 “일본 근대 이후 최초의 교육운동이라 부를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¹⁶⁾ 즉, 자유민권운동은 교육사적 관점에서 보면, 일본 공교육제도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계했던 교육운동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바 마사히로(千葉昌弘)는 민권운동에 참가했던 교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활약과 교육실천 활동에 주목하여, “교사 및 지역주민의 통합·협력관계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공교육의 체제화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지역의 교육에 적합한 것으로 ‘밑으로부터’ 개조하여, ‘학제’ 및 ‘교육령’의 근대적 측면을 실질적으로 신장시킨 가능성이 자유민권운동 시기 동안에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¹⁷⁾ 이들의 연구는 종래 교육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정치운동이나 문화운동, 혹은 일반적 민중운동으로 규정해온 자유민권운동을, 일본 최초의 교육운동으로 규정짓고 있으며, 이후 이러한 관점은 일반론이 되었다.

자유민권운동은 국회개설, 헌법제정, 조세경감 등의 국민의 권익 확립을 요구한 정치운동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이 정치의 단순한 수용자에서 주체자(主體者)가 될 수 있는 자기형성을 목표로 하는 일대 학습운동이었던 것이다. 또한 교육의 발전을 위해 자주적 집단을 형성하고, 교육의 내용을 국가의 요구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생활과 지역 실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편성하려는 노력, 그리고 특히 청년의 교육에 있어서는 지식을 단순한 인식의 레벨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는 정신과 함께 자기 것으로 획득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나카 후지마로가 1879년(明治12)의 이른바 ‘자유교육령’을

16) 黒崎勲(1971), “自由民権運動における公教育理論の研究,” 『教育學研究』, 第三八卷, 第一号.

17) 千葉昌弘(1972), “自由民権運動の教育史的意義に関する若干の考察,” 『教育學研究』, 第三九卷, 第一号.

제정과 그 이념 설정에는 자유민권운동의 확산이라는 시류(時流)가 있었고, 이후의 ‘개정교육령’의 제정(1880)과 때를 맞추어 ‘국체의 정화(精華)’로서 천황제 이데올로기 확립을 위한 덕육교육이 강제·강화되어 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칙어의 공포와 배포, 이를 봉독하는 행사의 강화 등의 일련의 의례의 제정과 정비, 마침 자유민권운동이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 조금씩 빛을 잃어가는 시기와 더불어 시작된다.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

짐이 생각컨대 우리 황조황종(皇祖皇宗)이 나라를 연 것이 광원(宏遠)하고 덕을 세움이 심후(深厚)하다. 우리 신민이 지극한 충과 효로써 억조창생(億兆蒼生)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대대손손 그 아름다움을 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국체(國體)의 정화(精華)이고 교육의 연원이 실로 여기에 있다. 그대들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 우애하며, 부부 서로 화목하고 붕우 서로 신뢰하며 공검(恭儉)하고, 박애를 여러 사람에게 끼치며, 학문을 닦고 기능을 익힘으로써 지능을 계발하고 덕기를 성취해 나아가 공익을 널리 펼치고 세상의 의무를 넓히며, 언제나 국헌을 존중하고 국법을 따라야 하며, 일단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의용(義勇)을 다하며 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천양무궁의 황운을 부익(扶翼)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대들은 짐의 총량한 신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들 선조의 유풍(遺風)을 현창(顯彰)하기에 족할 것이다. 이러한 도는 실로 우리 황조황종의 유훈(遺訓)으로 자손과 신민이 함께 준수해야 할 것들이다. 이것을 고금을 통하여 어긋나게 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중외(中外)에 베풀어 있어 도리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짐은 그대들 신민과 더불어 권권복양(拳拳服膺)하며 널리 미치게 하고, 그 덕을 함께 공유할 것을 절망한다.

18)

18) 朕惟フニ我力皇祖皇宗國ヲ肇ムルコト宏遠ニ德ヲ樹ツルコト深厚ナリ 我力臣民克ク

당시 법제국(法制局) 장관이었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와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이었던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등, 천황의 측근 그룹에 의해 작성된 ‘교육에 관한 칙어(教育に關する勅語)’, 이른바 교육칙어는, 자유민권운동과 당시의 사회에 만연해 있던 구화사상(歐化思想)에 반대하는 전통주의적·유교주의적 입장에서 덕육(德育) 중시를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⁹⁾ 신민(臣民)이 지극한 충과 효로써 대대손손 천황과 나라를 위해 진력하는 것이 ‘국체(國體)의 정화(精華)’이며, ‘교육의 근원’이라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신민이 진력해야 할 14의 덕목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덕목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훈(遺訓)’에 따라 영원히 준수해야 할 보편적 진리라 맺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공포 후에는 문부성이 직접 등본(謄本)을 만들어 전국의 학교에 이를 배포했으며, 학교의 각종 행사나 국가적 의례 시에 봉독(奉讀)하였다. 이후 교육칙어는 국민도덕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고, 최고의 교육이념으로써 신성시(神聖視) 되었으며, 국어·수신(修身) 과목을 비롯한 여러 교과서와 후술하는 창가(唱歌) 과목에서 사용한 노래들의 가사 또한 이러한 천황의 신성(神聖)함을 주입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만들어졌다. 교육칙어를 통해 명시된 천황제국가의 사상, 또는 교육이념은 1894년(明治27)의 청일전쟁(淸日戰爭)과 1904년(明治37)의 러일전쟁(露日戰爭)에 참가한 군인들의 충군애국(忠君愛國) 정신 함양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으며, 1931년(昭和6)부터 이어

忠ニ克ク孝ニ億兆心ヲ一ニシテ世々厥ノ美ヲ濟セルハ此レ我力國體ノ精華ニシテ教育ノ淵源亦實ニ此ニ存ス爾臣民父母ニ孝ニ兄弟ニ友ニ夫婦相和シ朋友相信シ恭儉己レヲ持シ博愛衆ニ及ホシ學ヲ修メ業ヲ習ヒ以テ智能ヲ啓發シ德器ヲ成就シ進テ公益ヲ廣メ世務ヲ開キ常ニ國憲ヲ重シ國法ニ遵ヒ一旦緩急アレハ義勇公ニ奉シ以テ天壤無窮ノ皇運ヲ扶翼スヘシ是ノ如キハ獨リ朕力忠良ノ臣民タルノミナラス又以テ爾祖先遺風ヲ顯彰スルニ足ラン 斯ノ道ハ實ニ我力皇祖皇宗ノ遺訓ニシテ子孫臣民ノ俱ニ遵守スヘキ所之ヲ古今ニ通シテ謬ラス之ヲ中外ニ施シテ悖ラス朕爾臣民ト俱ニ拳々服膺シテ咸其德ヲ一センコトヲ庶幾フ 教育칙어는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學制百年史 資料編’에서 인용. (한국어 역과 하선은 필자) <http://www.mext.go.jp>. (2012년 3월 15일 검색)

19) 교육에서의 덕육주의 진흥을 위한 것은 1889년의 대일본제국헌법 공포에 따른 새로운 법체제의 이행, 총선거 실시 등에 의한 정당정치 확립에 따른 구래의 질서 유지에 불안을 느낀 지방 장관들이 1890년 2월 지방장관회의에서 덕육진흥의 건의를 수합하여 문부성에 덕육교육을 확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辻本雅史 외, 전거서, p. 373.

지는 이른바 ‘15년 전쟁’ 기간 동안에는 극단적으로 신성시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천황제 이데올로기 형성을 노골화하는 메이지 후기의 교육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교주의에 입각한 덕육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이른바 종별(種別) 전문화·특성화 교육의 길로 들어선다. 메이지유신 이후 정부의 산업정책은 국영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1890년대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일본 최초의 산업혁명이라 부를 만큼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화된 인력 수요가 그 만큼 늘어났으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전문화·특성화된 종목 별 기능 별 교육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문부대신이었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는 1893년(明治26) 문부성령으로 14조로 구성된 ‘실업보습학교규정(實業補習學校規程)’과, 1894년 15조로 구성된 ‘도제학교규정(徒弟學校規定)’ 공포를 주도하였다.²⁰⁾

실업보습학교를 “제반 실업에 종사하려 하는 아동에게 소학교교육의 보습과 동시에 간이(簡易)한 방법으로 그 직업에 필요한 지능기술을 가르치는 곳”[實業補習學校ハ諸般ノ實業ニ從事セントスル兒童ニ小學校教育ノ補習ト同時ニ簡易ナル方法ヲ以テ其ノ職業ニ要スル知識技能ヲ授クル所トス]이라 정의하며, 그곳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심상소학교를 졸업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심상소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학령이 지난 자들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예외로써 입학할 수 있었다[第二條 實業補習學校入學者學力ノ程度ハ尋常小學校卒業以上ニ於テ之ヲ定ムヘシ但尋常小學校卒業ノ者ニアラサルモ學齡ヲ過キタル者ニ限リ實業補習學校ノ教科ノ全部又ハ一部ノ教授ヲ受クル爲ニ特ニ學校長ノ許可ヲ得テ入學スルコトヲ得]. 또한 학습과목은 수신(修身)과 독서(讀書), 습자(習字), 산술(算術)을 기본으로 실업에 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第四條 實業補習學校ノ教科目ハ修身、讀書、習字、算術及實業ニ關スル科目トス但修身ハ讀書ニ附帶シテ教授スルコトヲ得實業ニ關スル科目トス].²¹⁾ 이노우에는 경제적 발전

20) 실업보습학교규정과 도제학교규정은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2012년 3월 15일 검색)의 ‘學制百年史 資料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실업보습학교규정에서는 실업에 관계되는 다음과 같은 과목을 들고 있다. 第五條 實業補習學校ノ實業ニ關スル教科目ハ左ニ掲クル事項ヨリ撰擇シ又ハ便宜分合シテ之ヲ定ムヘシ 一 工業地方ニ於テハ図畫、模型、幾何、物理、化學、重學、工芸意匠、手工ノ類 二 商業地方ニ於テハ商業書信、商業算術、商品、商業地理、簿記、

을 통한 부국(富國)을 기반으로 애국심을 배양하려 했으며, 따라서 그에
게 교육적어는 상징 이상의 적극적 의미를 갖지 않았다.²²⁾

도제학교는 “직공이 되기에 필요한 교과를 배우는 곳(職工タルニ必要
ナル教科ヲ授クル所トス)” 으로, 입학 자격은 연령 12세 이상이나 심상소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를 원칙으로 하며, 심상소학교를 졸업하
지 않은 자는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입학할 수 있었다(第二條 徒弟學校
入學者ノ資格ハ年齡十二年以上及尋常小學校卒業以上ニ於テ之ヲ定ムヘシ
但尋常小學校卒業ノ者ニアラサルモ特ニ學校長ノ許可ヲ得テ入學スルコト
ヲ得). 학습과목은 수신·산술·기하·물리·화학·도화 및 직업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과 이들 과목의 실습 등이었다(第四條 徒弟學校ノ教科目ハ修身
身、算術、幾何、物理、化學、図畫及職業ニ直接ノ關係アル諸科目並實習
トス).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른 과목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으나 수신과목은 절대 제외시킬 수 없었다
는 것이다 (前項ノ教科目ハ修身ヲ除ク外學校長ニ於テ便宜取捨撰擇シ又ハ
隨意科トスルコトヲ得但實習ハ設備上又ハ其ノ他ノ關係ニ依リ學校ニ於テ
教授スルニ不便ナル職業ニ限り之ヲ欠クコトヲ得). 1년 전에 만들어진 실
업보습학교규정에는 없었던 규정이다. 또한 중등교육 단계의 교육을 강
화·정비하기 위해 1899년(明治32) 실업보습학교와 도제학교를 통합한 19
조의 ‘실업학교령(實業學校令)’ 과 20조로 구성된 ‘고등여학교령(高等女學
校令)’을 칙령(勅令)으로 공포한다.²³⁾

실업학교는 공업·농업·상업 등의 실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第一條 工業農業商業等ノ實業ニ從事スル者ニ須
要ナル教育ヲ爲スヲ以テ目的トス)로, 공업학교·농업학교·상업학교·상선학
교 및 실업보수학교가 이에 해당하며(第二條 實業學校ノ種類ハ工業學校
農業學校商業學校商船學校及實業補習學校トス), 잠업학교·산림학교·수의
학교·수산업학교 등은 농업학교의 하부에 포함시키고(蚕業學校山林學校獸

商業ニ關スル習慣及法令ノ大略、商業經濟、外國語ノ類 三 農業地方ニ於テハ或ハ
農業大意、或ハ耕耘、害虫、肥料、土壤、排水、灌溉、農具、樹芸、家畜、養蚕、
森林、農業帳簿、丈量ノ類

22) 辻本雅史 외, 전제서, p. 375.

23) 실업학교령과 고등여학교령은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學制百年史 資料編’에
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ext.go.jp>. (2012년 3월 15일 검색)

醫學校及水産學校等ハ農業學校ト看做ス), 도제학교는 공업학교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徒弟學校ハ工業學校ノ種類トス). 또한 필요에 따라 문부대신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업학교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第三條 文部大臣ハ土地ノ情況ニ応シ必要ナル實業學校ノ設置ヲ府縣ニ命スルコトヲ得). 고등여학교는 여자에게 필요한 보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第一條 高等女學校ハ女子ニ須要ナル高等普通教育ヲ爲スヲ以テ目的トス), 수학연한은 4년이었고, 연령 12세 이상으로 고등소학교에서 2년간 수학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해서 입학이 허락되었다(第十條 高等女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年齡十二年以上ニシテ高等小學校第二學年ノ課程ヲ卒リタル者又ハ之ト同等ノ學力ヲ有スル者タルヘシ). 이후 일본의 중등교육은 중학교·실업학교·고등여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산업화의 발달과 사회의 레벨 향상에 따라, 제국대학 출신자에는 못 미치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 짐에 따라 그러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6조로 구성된 ‘전문학교령(專門學校令)’이 1903년(明治36) 칙어로 공포된다.²⁴⁾ 전문학교령에 의해 새로이 전문학교가 설립되거나, 이미 전문학교라는 이름으로 설립 운영되던 기존의 지바의료전문학교(千葉醫學專門學校), 센다이의학전문학교(仙台醫學專門學校), 오카야마전문학교(岡山醫學專門學校) 등의 의학전문학교와, 도쿄외국어학교(東京外國語學校),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및 도쿄음악학교(東京音樂學校) 등은 의학·약학·법률 등의 전문교육을 행하는 전문학교로 승격하게 된다. 실업계통 학교는 실업전문학교라 불렸다. 전문학교는 고등의 학술·기예를 교수하는 곳(第一條 高等ノ學術技芸ヲ教授スル學校ハ專門學校トス)으로, 중학교·고등학교를 거쳐 진학하는 제국대학과는 달리 중학교 또는 수학연한 4년 이상의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이상(第五條 專門學校ノ入學資格ハ中學校若ハ修業年限四箇年以上ノ高等女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之ト同等ノ學力ヲ有スルモノト檢セラレタル者以上ノ程度ニ於テ之ヲ定ムヘシ)이 입학할 수 있

24) 전문학교령은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學制百年史 資料編’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ext.go.jp>. (2012년 3월 15일 검색)

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고등교육제도는 주로 고급 관료 양성 기관으로써의 제국대학과, 산업계나 사회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887년(明治20) 창설된 도쿄대학 하나뿐이었던 제국대학도 1897년(明治30)에 교토, 동 1907년(明治40)에 센다이(仙台), 1910년(明治43)에 후쿠오카(福岡)에 연이어 창설되었다.

자유교육령 반포를 전후로 해서 저하를 보이던 취학률도 1890년(明治23) 교육칙어 발표 이후 교육제도의 정비와 확충에 따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1886년(明治19) 소학교령 제정 이후 꾸준히 증가한 의무교육 취학률은 1898년(明治31)에 이르러서는 대략 70퍼센트 선에 달했다. 1900년(明治33)이 되면 소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같은 해 시험에 의한 진학제도를 폐지하고 이른바 자동진급제(自動進級制)가 실시되었고, 1907년(明治41)에는 의무교육의 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메이지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1910년대에 국가 운영과 산업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고등교육 제도가 완비되었고, 근대국가에 걸 맞는 문명화된 국민, 혹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충실한 신민 형성을 위한 일본의 초등교육은 메이지 후기에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급되게끔 되었다.

IV. 메이지 후기의 창가(唱歌)교육의 실태

학제는 교육의 목표, 내용, 대상, 취학연령, 수학연한, 학교 간의 접속과 분화 관계 및 연계 등, 교육 전반에 관한 포괄적 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이나 제도란 시대의 추이와 변화, 그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것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메이지 신정부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표방하면서도 많은 경우 위정자의 의지에 따라 제도가 정해지거나 개정되기를 반복했다. 따라서 교육목표의 변화에 따른 학제의 개정과 이에 따른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메이지 신정부 관료들이 생각했던 시대적 요구와,

일본이라는 근대국가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메이지 신정부는 서구 선진문화의 적극적 섭취·수용을 통한 선진 근대국가의 지향이라는 국가적 아젠더(Agenda)를 설정하였다. 그들이 지향하는 근대화된 국민국가는 국민통합이라는 절대적 조건 위에 성립하며, 국민통합은 공통된 이데올로기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메이지 신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설정한 공통체적 이데올로기는 바로 문명개화를 통한 근대화였으며, 그 선두에서 이를 이끌 강력한 전제군주로서 천황상, 즉 ‘국체(國體)’의 창출이었다. 통치수반임과 동시에 절대 권력자인 근대 천황상의 창출과, 이것을 민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실은 대부분의 경우 새롭게 창출된 ‘전통’에 의해 분석된 것이었다. 만세일계의 황실의 ‘연명성(連綿性)’과 신국(神國) 일본의 중국과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諸國)에 대한 절대적인 우위에 대한 맹신, 이세신궁(伊勢神宮)이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와 같은 국가적인 제사 체계의 확립, 그리고 황실의 국화 문장(紋章)이나 히노마루(日の丸) 등은 모두가 불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새롭게 창출된 것이었다. 새롭게 창출된 ‘전통’은 ‘문명’이라는 국민국가 형성기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일체화됨으로서 비로소 강력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²⁵⁾ 교육은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를 직접 각인시킴으로써 충실한 신민(臣民)을 키워내는 제도적 장치였던 셈이다. 메이지 신정부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학제의 반포를 통해 교육의 근대화를 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방법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1945년 패전 시까지 교육을 통해 추구했던 절대적 가치이자 이념이기도 하였다. 본 장에서는 메이지 후기의 창가(唱歌)교육을 중심으로 근대 천황상의 ‘전통’ 창출에 창가가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구현(具現)하고 있는지, 메이지 신정부의 국민통합을 위한 국민교육의 실제(實際)를 창가교육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일본에 처음으로 유입된 서양음악은 기독교의 찬미가(讚美歌)였다. 서양의 선교사가 처음 일본에 상륙한 것이 16세기 무렵이라 한다면, 그 당시에 이미 선교를 위해 은밀한 장소에서 찬미가가 불렀을 가능성도 있지

25) 박진우(2004),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 제이앤씨, p. 64.

만 정확한 기록은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유신(維新) 이후 기독교 금지령을 해제했던 1872(明治5)년 이후 요코하마(横浜)에 생긴 일본 최초의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찬미가가 불렸으며, 또한 선교를 위한 찬송가집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야스다 히로시(安田寛)의 연구에 의해 잘 알 수가 있다.²⁶⁾ 그러나 종교음악인 찬미가는 극히 한정된 일부 지역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예술·예능과 교육이라는, 많은 국민이 수용하고 향수하는 문화로서의 음악으로 보급·확대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서양음악의 수용과 확대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창가(唱歌), 그리고 군악(軍樂) 계통의 몇 몇 계보로 나뉘어 발전해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군악과 창가, 종교음악 계통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초기의 서양음악의 계보는 서로가 기능적으로 연동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개개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성립과 발전의 형(型)을 보인다. 종교음악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군악대의 음악은 사회상황과 국책에 연동하며 민간의 브라스밴드, 시중(市中)음악대, 소년음악대, 진돈야, 영화관의 악사, 대중가요, 재즈와 탱고 등의 경음악 등에까지 확대되어 갔다. 전문음악기관은 1879년(明治12) 문부성 산하 음악조사계(音樂取調係)가 설치된 이후 세분화하며, 1897년(明治30) 교원양성을 위한 예과(豫科)와 작곡과 연주 등의 음악관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선과(選科)로 구성된 관립 동경음악학교로 발전해간다.²⁷⁾ 학교교육의 장에서 불리던 창가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패전 이전까지 노래에 의한 국민 의식의 발양과 신민화교육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창가(唱歌)는 학제 안의 14번째 교과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초등(初等)·중등(中等) 교과과정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래로써, 주로 양악(洋樂)계통의 짧은 가곡(歌曲)’이라 정의할 수 있다.²⁸⁾ 창가는 당시 미국의 소학교 교과목인 ‘Vocal Music’의 번역어라는 설과,²⁹⁾ 학제를 제정할 때 참고했던 『화란학제(和蘭學制)』나 『불국학제(佛國學制)』

26) 安田寛(1993), 『唱歌と十字架』, 音楽之友社; 安田寛(2003), 『「唱歌」という奇跡 十二の物語』, 文藝春秋. 참조.

27) 奥中康人(2008), 『國家と音楽』, 春秋社, pp. 3-40.

28) 堀内敬三·井上武士偏(1958), 『日本唱歌集』, 岩波文庫, p. 240.

29) 安田寛(1993), 『唱歌と十字架』, 音楽之友社, p. 11.

등에서 정하고 있던 교과목에 대한 번역어로 보는 설 등 다양하나,³⁰⁾ 어떠한 경위를 거쳐 창가(唱歌)라고 번역되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1941년 ‘음악과(音樂科)’로 개명되기 이전까지 “악기에 맞춰 가곡(歌曲)을 바르게 노래하고, 덕성(德性)의 함양과 정조(情操)의 도야(陶冶)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教科目)” 혹은 그 “교과에서 사용되는 가곡(歌曲)”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었고, 개념상 ‘school song’의 번역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창가교육이 실시된 것은 1882년(明治15) 문부성 산하 음악조사계(音樂取調係)에서 만든 『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 초편(初編)이 세상에 나온 이후부터이다. 서구의 교과목에 준해 창가과목을 초등교육의 교과목에 포함시키기는 했어도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해야할 지에 대한 아무런 답을 갖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학제에서도 ‘당분간 이것을 빼다’라는 단서를 달 수 밖에 없었다. 물론 1876년(明治10) 도쿄여자사범학교(東京女子師範學校) 부속 유치원에서 궁내성(宮內省) 식부료(式部寮) 아악과(雅樂課)에 의뢰해 만든 「보육창가(保育唱歌)」를 가지고 창가교육을 시작했고, 1877년(明治11) 교토여학교(京都女學校)에서 『창가(唱歌)』라는 교과서를 출판해 쓰쿠시소(筑紫筍)를 반주악기로 사용한 창가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었으나, 이는 극히 산발적이며 국지적 현상으로 전국 규모의 창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이에 이자와 슈지(伊澤修二)와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의 주도에 의해 1882년 창가 교과서 편찬과 창가교육을 위한 전문 인재 육성, 국악(國樂) 창성을 목표로 문부성 내에 음악조사계(音樂取調係)가 설치되었고, 미국의 저명한 음악교육 전문가 메이슨(Luther Whiting Mason, 1818-1896)의 협력 하에 창가교육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음악조사계에

30) 日本教育音樂會編(1838), 『本邦音樂教育史』, 音樂教育出版協會, pp. 53-61. 그 밖에 폭 넓게 교과목으로서의 창가는 영어의 ‘singing’을, 가곡으로서의 창가는 영어의 ‘song’의 번역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堀内敬三·井上武士 編, 전게서) 창가를 ‘singing’과 ‘song’의 번역어로 보기에 그 ‘singing’과 ‘song’의 범위가 너무 넓어 ‘국가’‘교가’‘옹원가’‘군가’‘동요’ 등도 ‘song’의 범위에 들어 국가나 교가, 동요 등도 학교에서 가르칠 경우 이를 창가라 할 수 있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 노래는 모두 ‘school song’이라는 번역어 정도로 개념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 출판한 메이지 전기의 대표적 창가집인 『소학창가집』 전 3편(1882-1884)에 실려 있는 91곡의 노래는, 1) 천황에 대한 칭송이나 나라와 천황에 대한 인민의 충성을 소재로 한 노래, 2) 애국심 고양(高揚)을 위한 일본의 사물(事物)을 소재로 한 노래, 3) 효행과 충의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도덕적 사상을 소재로 한 노래, 4)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과 경물(景物)을 소재로 한 노래, 5) 강인한 정신과 신체, 근학·계몽사상을 소재로 한 노래, 6) 그 밖의 것을 소재로 한 노래 등, 크게 6개의 주제로 대별할 수가 있다. 이른바 ‘화조풍월(花鳥風月)’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자연물을 소재로 한 ‘아문조(雅文調)’의 노래가 43곡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자와와 메가타가 학교 교육에 창가를 도입함에 있어 ‘지각심경(知覺心經)을 활발히 하여 정신을 쾌락하게 만들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며 즐겁게 함과 동시에 선한 심성을 분기케 한다’는, 창가교육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타로 분류한 8곡을 제외한 나머지 40곡의 대부분이 근학(勤學)과 계몽사상을 소재로 하고 있는 약간의 노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천황이나 일본에 대한 칭송, 아니면 효행(孝行)과 군주(君主)에 대한 충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교적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곡명과 가사를 갖는 노래라는 점이다. 1880년의 개정교육령 반포 이래 학교 교육은 ‘인의충효(仁義忠孝)’를 강조하는 ‘덕목주의(德目主義)’교육, 즉 덕육(德育)에 중점이 놓여 있었으며, 덕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체 형성과 그에 충실한 ‘신민(臣民)만들기’에 있었음은 전 장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메이지기 창가교육이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체형성과 신민(臣民) 형성을 위한 정서적·심리적 교육을 위한 도구로 점차 변질되어 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어서 문부성 음악조사계에서 유아(幼兒)의 창가교육을 위해 만든 『유치원창가집(幼稚園唱歌集)』(1887)도 서언(緒言)과 실려 있는 29곡의 내용을 보면, 이 역시 『소학창가집』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통한 ‘덕성(德性)의 함양(涵養)’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이 유치원생이다 보니 노골적으로 충군충효 사상을 강조하는 노골적인 가사를 배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창가교육의 주체가 유아(幼兒)로만 바뀌었을 뿐 그 목적은

별반 다르지 않다.³¹⁾ 즉, 창가는 다름 아닌 ‘교학성지(敎學聖旨, 1879)’, ‘교육칙어(敎育勅語, 1890)’에서 강조한 ‘인의충효(仁義忠孝)’를 바탕으로 하는 ‘충군애국(忠君愛國)’이라는 국민사상을 창조하는 도구였으며, 노래를 통한 정서적·심리적 ‘덕성(德性)의 함양(涵養)’이라는 메이지 신정부의 교육이념은 창가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져 갔다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1894년(明治27) 청일전쟁을 계기로 메이지 후기로 접어들면서 창가교육은 일대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창가교육은 주로 전기의 ‘정조(情操)’를 중심으로 하는 덕목교육에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충군애국(忠君愛國)’ 사상 함양에 더해 전의(戰意) 고양(高揚)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른바 문부성창가(文部省唱歌)라 불리는 일련의 창가집에는 전쟁을 소재로 한 군국미담(軍國美談)과 전쟁영웅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다수 수록되기에 이른다.³²⁾

『심상소학독본창가(尋常小學讀本唱歌)』(1910)는 『심상소학창가(尋常小學唱歌)』(1911-14)가 출판되기 전까지 사용된 창가교과서로, 당시 소학교령(小學校令)의 ‘교과통합(敎科統合) 시행규칙’에 의해 국어독본(國語讀本) 교과서 『심상소학독본(尋常小學讀本)』에 실려 있던 시(詩)에 곡을 붙이거나,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재(題材)로 해서 만든 준 국정(國定)창가집이다. . 수록되어 있는 27곡은 대부분 문부성이 음악조사계의 후신(後身)인 동경음악학교(東京音樂學校)에 의뢰하여 만들어졌다.³³⁾ 전

31) 『소학창가집』과 『유치원창가집』에 실려 있는 노래와 내용 분석 : 이권희 (2010), “근대일본의 ‘소리문화’와 창가(唱歌) -창가의 생성과 ‘음악조사계(音樂取調掛)’의 역할을 중심으로,” 『日本思想』, 제19호, pp. 107-131.

32) 문부성창가란 1910년(明治43)부터 1944년(昭和19)까지 문부성이 편찬한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고등소학교(高等小學校), 국민학교(國民學校) 및 예능과(芸能科) 음악교과서에 실려 있는 창가의 총칭이며 문부성이 정한 정식명칭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심상소학독본창가(尋常小學讀本唱歌)』(1910) 『심상소학창가(尋常小學唱歌)』(1-6학년, 1911-1914) 『고등소학창가(高等小學唱歌)』(1930) 『신정심상소학창가(新訂尋常小學唱歌)』(1-6학년, 1932) 『신정고등소학창가(新訂高等小學唱歌)』(1-3학년, 남녀 별, 1935) 『우타노홍(ウタノホン) 상·하』(국민학교 초등과 1,2학년, 1941) 『초등과음악(初等科音樂) 一-四』(초등학교 초등과 3-6학년, 1942-1943년까지) 『고등과음악(高等科音樂) 一』(남녀 별, 1944) 등의 창가집에 실려 있는 노래가 문부성창가의 범주에 속한다.

33) 東京芸術大學百年史編集委員會編(2004), 『東京芸術大學百年史 東京音樂學校篇 第二卷』, 音樂之友社, pp. 749-772.

곡은 『심상소학창가』에도 그대로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개사(改詞)는 있었지만 1932년(昭和7)의 『신정심상소학창가』와 1941년(昭和16)부터 소학교에서 이름을 바꾼 국민학교(國民學校)의 예능과 음악교과서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게다가 몇몇 노래들은 패전 이후의 검정교과서(檢定教科書)에도 수록되었고, 심지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노래를 담고 있다. 『심상소학창가』는 『심상소학독본창가』에 수록되어 있는 27곡의 창가에 새롭게 만들어진 창가를 포함한 120곡을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 별로 1책 20곡씩을 수록해 전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³⁴⁾ 1911년 4월부터 신정판(新訂版)이 만들어지는 1932년 3월까지 약 21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창가교과서의 표준으로 사용되었다.

『심상소학창가』에 실려 있는 120곡을 노래 가사의 내용분석을 근거로 하여 분류해 보면, 1) 애국심 고양(高揚)을 위한 일본의 사물(事物)을 소재로 한 노래, 2) 신화나 천황가를 소재로 한 노래, 3) 역사·전설·설화(옛날이야기) 속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노래, 4) 효행과 충의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적·도덕적 사상을 소재로 한 노래, 5)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과 경물(景物)을 소재로 한 노래, 6) 강인한 정신과 신체, 근학·계몽 사상을 소재로 한 노래, 7) 전쟁과 군인을 소재로 한 노래, 8) 풍습이나 생활상을 소재로 한 노래, 9) 그 밖의 것을 소재로 한 노래 등, 크게 9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심상소학독본창가』에는 두 곡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나 전설·설화 등을 포함하는 옛날이야기 속 주인공들을 소재로 한 노래가 『심상소학창가』에는 무려 18곡이나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교과서가 교과통합이라는 방침에 따라 교육의 소재를 공유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들 대부분이 무장(武將)이며, 소가(曾我)형제나 사이토 사네모리(齋藤實盛), 고지마 타카노리(兒島高德) 등과 같이 전세(戰勢)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주군(主君)을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孤軍奮鬪)하며 끝내는 장렬히 전사한 역사적 실존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애국심 발양, 또는 전의

34) 5학년용에는 21수, 6학년용에 19수.

(戰意) 고양을 위해 이러한 ‘충용미담(忠勇美談)’이 호재(好材)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또한 히로세 중령(廣瀨中佐)이나 다치바나 중령(橋中佐)과 같이 러일전쟁 당시 나라와 전우를 위해 극한 상황에서 목숨을 버린 전쟁영웅을 소재로 한 노래도 눈에 띈다. 히로세와 다치바나는 청일전쟁에서는 이렇다 할 군신(軍神)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 일본 최초의 군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애국심 고취 및 전의 고양, 나아가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사회통합의 방법으로써 전쟁영웅의 창출과 수용이라는 점에 있어 미디어를 포함한 여러 매체와 더불어 창가가 그 일익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밖에 『심상소학창가』만큼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1894년(明治27) 제1편이 발행된 이후 7편까지 나온 『교과적용 대첩군가(大捷軍歌)』에는 ‘황해의 전투(黃海の戰鬪)’, ‘용감한 수병(勇敢なる水兵)’ 등 청일전쟁·러일전쟁 당시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전쟁 시에도 많이 불리게 되는 노래가 다수 실려 있다.

메이지 신정부가 근대국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에 전쟁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전쟁은 국가가 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교육은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자발적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통합된 이데올로기 형성의 장으로 변질되어 간다. 1881년(明治14) 발표된 ‘소학교교칙강령(小學校教則綱領)’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지와 지향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소학교교칙강령에서 소학교의 역사교육은 일본의 역사만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⁵⁾ 역사교육을 일본사만으로 한정시킨 것은 역사교육의 목적을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통보(皇統)의 연면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국과 그 군주인 천황에 대한 절대적 ‘충군애국’ 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중(民衆)이 정치 주역으로 등장하는 세계사의 흐름은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것이다.³⁶⁾ 그 후 1886년(明治19)에 시행된 교과서에 대한 검정제(檢定制)와 1903년(明治36)의 국정제(國定制)는 이러한 국가권력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35) 소학초등과에서는 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학중등과에서는 일본사에 한정하고 있다.

36) 山住正巳(1997), 『戰爭と教育』, 岩波書店, p. 20.

와 같이 창가교육을 포함한 메이지 전기의 학교교육의 지향점이 국체의 형성이라는 국민의 공통된 이데올로기 창출과 이를 강제적으로 주입시켜 충실한 신민(臣民) 만들기에 있었다면, 메이지기 중반 이후, 즉 청일전쟁 무렵부터 창가교과서에 충군애국의 사상과 전의고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사를 갖는 노래가 다수 등장하는 것은, 몇 번의 전쟁을 계기로 충군 애국 정신과 전의 고양을 위한 군국미담(軍國美談)을 설파하는 심리적·정서적 수단으로 창가가 이용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V. 맺음말

근대 국민국가는 국민통합이라는 절대적 조건 위에 성립하며, 국민통합은 공통된 이데올로기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일본의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에 있어 국민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는 다름 아닌 문명개화를 통한 근대화이며, 그 선두에서 이를 이끌 강력한 전제군주, 즉 만세일계의 황통보(皇統譜)를 자랑하는 천황 그 자체였다. 외부에 강력한 적이 상존(常存)했다면 국외의 가상 적을 만들어 국민통합에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서구 세계와 같은 절대적 종교체계가 있었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하에 혼연일체(渾然一體)된 사상을 만들어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사 이래 섬나라 일본에 상존하는 외적은 없었고 민중을 하나로 묶는 절대적 종교체계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메이지 신정부는 국민통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종교가 필요했던 것이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신도(國家神道)의 등장은 바로 이와 같은 근대국가의 논리에 의해 창출된 것이다. 즉,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강화는 다름 아닌 국민통합의 기재(機材)로써 새롭게 착목한 그들의 오랜 ‘전통’이었던 것이다.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창출과 강화를 위해 메이지 신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창가교육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국가(國歌) 제창이나 교가, 응원가, 아니면 애창곡을 함께 부르며 공유한다는 것이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와 더불어 메이지 신정부는 전의고양과 애국심 배양을 위하여 교과서를 통한 교실 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병식(兵式)체조, 운동회 등 다양한 의식(儀式)을 제정했으며, 이 현장에서 창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에 의한 ‘축일대제일(祝日大祭日)’의 제정과 이에 맞춰 문부성에서 제작한 8곡의 ‘축일대제일창가(祝日大祭日唱歌)’가 바로 그것이다.³⁷⁾ 1890년(明治23) 교육칙어가 반포되자 바로 이듬해부터 축일(祝日)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봉축(奉祝)의식이 거행되게 되었다. 만세봉축, 교육칙어의 봉독(奉讀)과 더불어 1893년(明治26)부터는 ‘기미가요(君が代)’를 비롯해 ‘1월 1일의 노래’ ‘천장절(天長節)’ ‘기원절(紀元節)’ 등의 ‘축일대제일의식창가(祝日大帝日儀式唱歌)’ 제창(齊唱)이 정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의 간소화는 있었어도 창가 제창이 생략된 경우는 없었다.

근대 일본의 교육과정에 창가(唱歌)를 도입한 원래의 목적은, 노래를 통해 ‘지각심경(知覺心經)’을 활발히 하며 정신을 쾌락하게 만들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즐겁게 합과 동시에 선한 심성을 분기케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메이지기의 창가교육은 전기의 ‘정조(情操)’를 중심으로 하는 덕목교육에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충군애국(忠君愛國)’과 전의(戰意) 고양(高揚)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갔다. 말할 나위도 없이 1945년의 패전 이전까지 이러한 경향은 라디오 방송 개시와 레코드 음반의 유통이라는 새로운 기재(器材)의 출현과 더불어 그 정도를 더해간다. 본고에서는 그 시기를 메이지기에 한정해 주로 창가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제국주의, 군국주의로 치닫는 20세기 초 일본의 사상적 정체성 확립에 교육, 특히 창가교육이 어떻게 관여하고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지면의 제약도 있고 해서 창가의 가사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남으나, ‘소리문화’라는 통시적 흐름 안에서 창가라는 메이지기 일본의 소리문화의 특성을 문화사적 견지에서 이를 규명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며, 1910년대 이후 1945년의 패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중가요를 포함한 ‘문화권력’에 의한 소리문화의 규제와 통제정책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37) 第一 君が代 第二 勅語奉答 第三 一月一日 第四 元始祭 第五 紀元節 第六 神嘗祭 第七 天長節 第八 新嘗祭.

| 참고문헌 |

- 김순전 외(2004). 『수신하는 제국』. 제이앤씨.
- 윤종혁(2008). 『한국과 일본의 학제 변천 과정 비교 연구』. 한국학술정보.
- 이권희(2010). “근대일본의 ‘소리문화’와 창가(唱歌) - 창가의 생성과 ‘음악조사계 (音樂取調掛)’의 역할을 중심으로.” 『日本思想』. 제19호, pp. 107-131.
- 이권희(2011). “근대기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과 창가(唱歌) - ‘문부성창가 (文部省唱歌)’를 중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제77호, pp. 283-303.
- 이권희(2011). “메이지(明治) 전기 국민국가 형성과 교육 - 학제(學制)의 변천과 창가(唱歌) 교육을 중심으로.” 『日本思想』. 제21호, pp. 159-190.
- 장인성(2007). 『메이지유신 현대일본의 출발점』. 살림.
- 한용진(2010). 『근대 이후 일본의 교육』. 문.
- 北桐芳雄 외(2011). 『일본 교육의 역사』. 이건설 역. 논형.
- 辻本雅史 외(2011). 『일본교육의 사회사』. 이기원 · 오성철 역. 경인문화사.
- 文部省(1972). 『學制百年史 記述編』. 東京: 文部省.
- 文部省(1972). 『學制百年史 資料編』. 東京: 文部省.
- 井上武士偏(1972). 『日本唱歌全集』. 東京: 音樂之友社.
- 大久保利謙(1987). 『大久保俊謙歴史著作集 4 明治維新と教育』. 東京: 吉川弘文館.
- 奥中康人(2008). 『國家と音樂』. 東京: 春秋社.
- 海後宗臣 仲新編(1965). 『日本教科書大系 近代編 第25卷 唱歌』. 東京: 講談社.
- 黑崎勳(1971). “自由民權運動における公教育理論の研究.” 『教育學研究』. 第三八卷. 第一号.
- 山東功(2008). 『唱歌と國語』. 東京: 講談社新書.
- 田中彰(2003). 『明治維新と西洋文明』. 東京: 岩波書店.

- 千葉昌弘(1972). “自由民權運動の教育史的意義に關する若干の考察.” 『教育學研究』. 第三九卷. 第一号.
- 東京芸術大學音樂取調掛研究班(1976). 『音樂教育成立への軌跡』. 東京: 音樂之友社.
- 東京芸術大學百年史編集委員會 編(1987). 『東京藝術大學百年史』. 東京: 音樂之友社.
- 中村紀久二(1992). 『教科書の社會史 一明治維新から敗戦まで』. 東京: 岩波新書.
- 日本教育音樂會 編(1838). 『本邦音樂教育史』. 東京: 音樂教育出版協會.
- 堀内敬三·井上武士 編(1958). 『日本唱歌集』. 東京: 岩波文庫.
- 堀内敬三(1997). 『定本 日本の唱歌』. 東京: 實業之日本社.
- 安田寬(1993). 『唱歌と十字架』. 東京: 音樂之友社.
- 安田寬(2003). 『「唱歌」という奇跡 十二の物語』. 東京: 文藝春秋.
- 山住正巳(1967). 『唱歌教育成立過程の研究』.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山住正巳(1997). 『戰爭と教育』. 東京: 岩波書店.
- 渡辺裕(2010). 『歌う國民』. 東京: 中公新書.

| 논문투고일 : 2012년 03월 30일 |

| 논문심사일 : 2012년 04월 04일 |

| 게재 확정일 : 2012년 04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19. No. 1 (2012)

The Constitution of Nation-State and Education in the Late Period of the Meiji

Kwon-Hee Lee

(Academy of Asian Studies, Dankook Univ.)

Japan's modern education was propelled as a part of new Meiji(明治) government's educational reform. The new Meiji government entered the way of modernization later than Western powers, and the modernization of education was thought to serve it for catching up the gap. To meet the national goal of 'wealthy nation and strong military (富國強兵)' and of 'rich production and industrial promotion(殖産興業)', competent people to reach the goal were necessary. To train them, the new Meiji government need to found advanced educational systems and to prepare contents for such education based on pragmatic practical thoughts as soon as possible. The inspection team whom the government dispatched, referring and imitating advanced educational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Germany, and France, established Japan's school system, and Japan's educational system achieved rapid development through its regulations for education reformed in accordance with trends.

I previously have researched on the educational systems in the early Meiji period from 1868 till 1890. Indeed, this study, as its follow-up, covers the twenty years of Japan's national education in the late Meiji period from 1890 to 1911, focussing on the changes of educational ideologies. This attempts to examines, from diachronic perspective, Japan's national education in the late Meiji period with examples

showing how the changes of systems and of ideologies influenced the special area of teaching school song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educational ideologies and teaching school songs as their realization within the educational reality in the late Meiji period in which the Dennō(天皇) ideology was completed. For the prior step before researching how education involved in the ideological identity formation of the early 20th century Japan which got into imperialism and militarism, this study thinks about the formation of norm and education in the late Meiji period Japan that was the strong Dennō-centric nation-state.

Key words: Japan's National Education, School Song, Government Code of Education, Moral Training Education, War Heroes